



성화론

## 내 목소리를 들으라

1 기도    2 찬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158쪽)

3 말씀 읽기 예레미야 7:22-23

22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4 말씀 이해하기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를 추억하십니다. 여기서 회상하시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때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명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22절). 그분이 명하신 것은 오직 '내 목소리를 들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서도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빌미로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삼상15:22-23). 그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격과 삶이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없이,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없는 경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 기도, 말씀 읽기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것입니다(눅18:9-14). 하나님은 성도의 사랑을 원하시며, 그분을 향한 경외와 순종을 원하십니다(막12:30). 예배는 순종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이 삶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겸손히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께서 기쁨과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



---

2.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번제와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

3.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제사를 통하여 백성의 과 이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4.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5. 여러분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



---

6 함께 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7 주기도문